

섬진강의 아름다움, 캔버스로

순창군, 전국사생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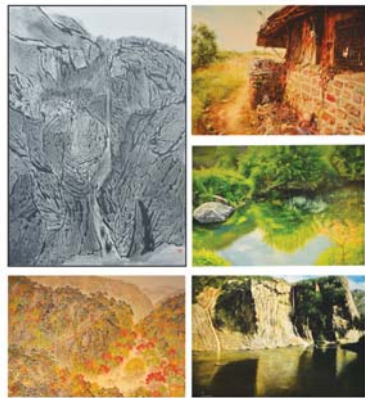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풍경화·서양화 등 응모 가능

순창군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이며, 모집부문은 전체 5개 분야에 걸쳐 접수받는다. 응모분야는 초등부는 풍경화, 중·고등부는 풍경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나뉘며,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부는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풍경화로 나뉜다.

작품 규격은 학생부가 4절지이며, 일반부는 20호에서 50호까지다. 응모는 1인 2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수상할 경우 최고 수상작 1점만 시상한다. 소재는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섬진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원서 교부기간은 11월 27일까지며, 작품 접수는 11월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이다. 작품은



지난해 열린 섬진강 사생공모전 입상작.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응모시 순창군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샷이나 사진, 이용권, 입장권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상금과 상장도 수여된다. 일반부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부장관상, 학생부 대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 총 32점과 39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일반부는 특별상이상 작품은 순창군에 귀속된다.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온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은 전국의 실력있는 미술인들이 참여해 매해 출품작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있어, 심사위원들도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지난해까지 입선작들에 대해서 육천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순창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순창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군민들 또한 일상으로 봐왔던 순창의 모습들이 작가들 시선으로 새롭게 탄생해, 순창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이 6회째를 맞이하며 그간 전국에 실력있는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 올해도 기대된다"면서 "전국의 실력있는 미술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육천미술관(063-650-163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내가 사는 주변 보며 변화해가는 '나 자신'

김영민 개인전 '흐르는 풍경'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gallery숨서



김영민 개인전이 8월 31일~9월 12일까지 '흐르는 풍경'이라는 전시명으로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로 열린다.

gallery숨 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해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아서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숨의 의지다.

김 작가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인 강박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가능할까?', '뒤돌아보면 잘 그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 '매력적인 그림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살며 미래라는 강박에 끊임없이 갇혀 있었다.

골레에서 벗어날 즈음, 마음 깊숙이 배척했던 풍경들이 눈에 담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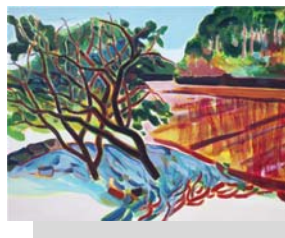
매일 지나쳐서흔해서 익숙해서 눈에 담기지 않았던 풍경들. 어느 날 그들에게 눈이 갔고

만지고 그리고 있다. 풍경은 특별하지 않아 특별했고 평범해서 평범하지 않았다.

손 내밀면 쉽게 닿는 곳에 있지만 잡을 이유 없는 존재였다.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찌면 내겐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흐르는 풍경'은 주로 내가 사는 주변을 보고 그리며 조금씩 변화해가는 나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래에 대한 강박을 벗고 그저 그리고 흘러 보낸다.

한편 김영민 작가의 개인전은 '흐르는 풍경', '인간사랑', '일상과 예술', '자화상:살을 가진 유령', '두 마리 토끼', '반응의 경계'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시'詩'가 꽃피'華'는 '木'나무

박여범 작가, 첫번째 시집 발간

박여범 시인이 첫번째 시집 '시'詩'가 꽃피'華'는 '木'나무(도서출판 부크크)를 펴냈다. 시인은 글을 연재(전주매일, 전북타임스)하면서 꼭지마다 유의미한 목적을 찾으려 시도했다. 특히, 보잘 것 없는 제가 불특정 다수와 글로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시인은 "즐거면서, 재미도, 공감도, 나눔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시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다"고 한다.

시인의 뜻과 달리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시가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적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찾아가는 중이다.

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당신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멋들 어지개요

나날이 멋있어지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知音 최00 기록 전문

언젠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知音)'에게서 날아온 '기록'이다. 요즘 자신의 삶을 넘어서려 전해 준 몇 줄 안 되는 산문체의 짧은 문장이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이 어지럽게 뇌를 휘감기에는 충분하다. 심포도, 느낌표도, 물음표도, 마침표 같은 형식이 필요 없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카톡'이라는 매체를 통해 글로 옮겼을 지음(知音)의 마음이 따라서이다.



시인은 "시'詩'가 꽃피'華'는 '木'나무는 힘 없이 달려와 처음으로 긴 여운이 남는 삶의 궤적에서 아련함의 기록이다. 제1부 시골 길을 걸으며, 제2부 긴 여운이 남는다. 제3부 살구꽃

이 필 때면, 제4부 처음으로 눈이 마주했을 때, 제5부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이라는 다섯 꼭지의 엄청 힘든 일을 시로 토해내는 작업이다. 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참으로 엄청난 일이지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시를 통해 마주하고자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인은 충북 옥천 청산 출생이다. 시인,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수필가로 전북문인협회, 남원문인협회 회원,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연구원으로 '아침독서편지'를 지필했다. 전북타임스신문 오피니언과 전주매일신문 오피니언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詩'학교, 최고의 아이들(문경출판사), '독서로 행복해지는 한 권의 책'(부크크), '시'詩'가 꽃피'華'는 '木'나무(부크크)의 다수가 있다.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광주대학교, 서남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 전북지역대학에서 글쓰기와 비평론에 대한 다년간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용봉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김윤성 기자

순창청소년수련관, 음악시설 기능보강 완료

순창군청소년수련관(운영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이 최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했다.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는 공연장내 음악시설을 교체하고, 보컬공연,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 맞게 무대도 확장했다. 또한 활동실(4층)을 음악 스튜디오로 활용기 위해 최신 녹음장치와 방음시설도 구축했다.

청소년수련관 최광동 관장은 "지역청소년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전문 강사진을 연결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숙주 관수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여가와 취미, 특기, 관심 있는 것을 마음껏 펼치고 발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적 소의를 겪지 않도록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은 관내 청소년들의 알찬 성장을 위해 청소년축제, 100브러치 콘서트, 어린이의회, 원탁토론, 드론과 모형자동차,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